

풀장 한쪽에선 때 밀고, 물에는 오물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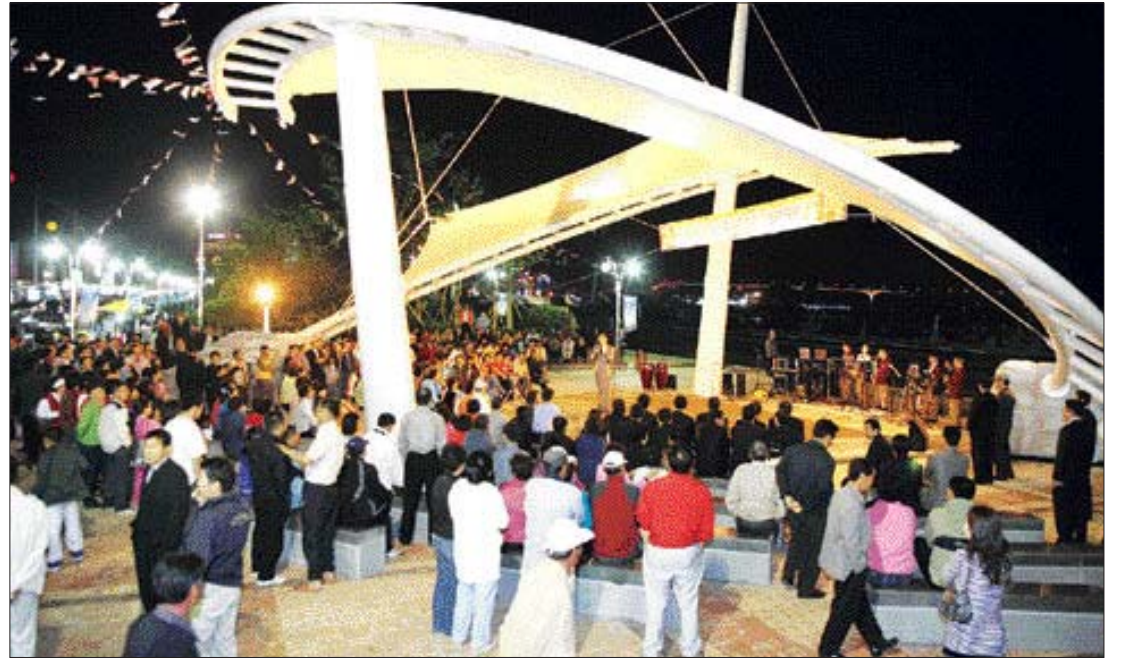
영암 氣찬랜드 무질서 '해도 너무해'

공중도덕 상실에 수질도 휴탕물... 일부 피서객 피부질환 고통 호소

'한 쪽에선 때밀고, 물에는 오물 등~등'
영암군이 월출산 자락에 조성한 대규모 물놀이 시설인 '기(氣)찬랜드'가 이용객들의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이면 자연형 풀장의 수질은 바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휴탕물에 가깝고, 일부 피서객들은 풀장 내에서 때를 밀고, 음식물을 먹는 등 공중도덕이 실종됐다.
이로 인해 기찬랜드를 방문한 일부 피서객들은 피부질환과 산부인과 질환을 호소하는 등 전염병 발생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가족과 함께 기찬랜드를 방문한 이모(40·영암군 삼호읍)씨는 아직까지 물놀이 후 유증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물놀이를 즐겼다는 이씨는 "기찬랜드를 다녀온 후 자신은 물론

초등학생 아들 두 명도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질환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자신의 경우 다음날부터 산부인과 질환까지 발생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마저 입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3일 기찬랜드를 찾은 김모(36·광주시 서석동)씨도 "다시는 찾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김씨는 "오전에는 그나마 깨끗하던 물이 오후가 되자, 오물이 동동 떠다니는 가 하면 바닥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변했다"면서 "일부 피서객들은 풀장 내에서 때를 밀고, 음식을 먹는 등 너무 저지분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중단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다.
영암군도 물러드는 피서객들로 무질서 행위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군은 매일 한 차례씩 소독약품을 투입해 물을 정화시키고, 3일마다 대규모 청소도 실시하는 등 깨끗한 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하루 5천여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쏟아내는 각종 오물을 정화하기에 역부족이다.
특히 계곡물이 부족해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어 물을 자주 갈아주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료인 12명이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돌아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여성 생리용품까지 버리는 등 무질서 행위가 심각한 만큼 이용객 스스로 공공 시설물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월출산 자락 움푹하게 자리 잡은 기찬랜드는 6만7천㎡의 부지에 110억 원이 투입됐으며, 1만 8천을 담수할 수 있는 대형 사방댐과 5개의 자연풀장, 사성교(四星橋), 팔각정, 구름다리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야외 음악당과 음악분수가 있는 완도 해변공원에 매일 밤 1천여명의 주민과 피서객이 몰려 공연과 운동, 낚시 등을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완도 해변공원에 가면 오감이 즐겁다

야외 음악당·분수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 매일 밤 주민 1천여명 모여 공연·낚시 등 즐겨

국제 무역항인 완도항 일대에 조성된 해변공원이 지역민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변신했다.
완도군은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 추진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km, 부지 2만2천㎡에 해변과 항만을 소재로 한 해변공원을 조성했다.
해변공원은 산책로와 쉼터 등 휴식공간을 비롯해 야외 음악당, 바다분수, 동백꽃 조형분수, 최경주 광장 등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 공원에는 매일 밤 주민과 피서객 1천여명이 공연, 운동, 낚시 등을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또 완도 상징물인 갈매기와 빛을 모티브로 다도해 일출공원, 스포츠 테마 파크와 연계해 관광인프라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소득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완도 해변공원은 항만기능 위주 개신사업을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을 적용해 도시환경을 조성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에서 보기 드문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돼 항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가고 싶은 섬', '휴양하기 좋은 섬'으로 지역 이미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chung@

이곳 혁신적인 업무추진 노력으로 국제 무역항 위상에 걸맞는 문화 예술 공간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도군은 5일 시장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다도해 일출공원, 스포츠 테마 파크와 연계해 관광인프라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소득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완도 해변공원은 항만기능 위주 개신사업을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을 적용해 도시환경을 조성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에서 보기 드문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돼 항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가고 싶은 섬', '휴양하기 좋은 섬'으로 지역 이미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chung@

"예산확보 바쁘다 바빠"

전원준 화순군수, 중앙부처 돌며 예산 챙기기 분주

전원준 화순군수가 내년도 국고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돌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 군수는 전남도를 통해 군에서 건의한 사업 예산이 중앙정부에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대로 요구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달 28일 상경, 지난 1일까지 과천 정부청사와 세종로 정부청사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가 입주해 있는 계동 현대사옥을 수시로 오가며 내년도 화순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과정을 확인했다.
화순군의 내년도 주요 사업은

▲프라하호퍼 IME 연구소 한국 연구센터 유치 ▲모후산 생태숲 조성 사업 (이상 기획재정부) ▲지식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환경부) ▲대리 교차로 개선사업 (국토해양부) ▲암 전문 통합진료센터 건립(보건복지가족부) ▲친환경 농업단지 신축(농림수산식품부) 등이다.
전 군수는 "지방 자치단체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예산 확보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동안 확보한 인맥을 활용해 정부 정책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신안 '간마늘' 증가집 김치 납품

지난달 17일부터 하루 2t씩 (주)청람과도 연 50t 납품 계약

신안 간마늘이 국내 유수의 식품 제조업체에 대량 납품되고 있다.
신안농협 농산물 유통센터는 (주)대상과 체결한 상품플러스 협약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간마늘을 하루 2t씩(연간 300여t) 증가집 김치에 납품하고 있다. (사진)
이와 함께 국내 유수의 식자재 공급 및 유통업체인 (주)청람에 연간 50t의 간마늘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신안군 앞면에 세워진 신안농협 농산물 유통센터는 하루 4t의 마늘을 팔 수 있는 간마늘 자동화 시스템을

비롯해 1천100t의 마늘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 저장시설과 건조기, 소각로 등을 갖추고 있다.
농산물 유통센터의 본격 가동으로 마늘 가공과 출하하기 조질을 통해 연간 3억여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억여원의 농의소득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신안농협은 앞으로 1억3천만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 다진마늘 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신안군도 3년간 200억원이 투입되는 마늘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해 신안지역을 생산·가공·유통 연관사업과 연계된 국내 마늘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조완규기자 wncho@

'여수 엑스포'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 한창



여수시 돌산면 우두리와 소리면 덕양리를 잇는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도로(18.7km) 공사가 한창이다. 여수시는 2012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과 박람회장을 연계하는 주요 도로망 확충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해양수산과학관 '인기몰이'

울초 체험수족관 신설 관람객 30만명 넘어서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해양수산과학관에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달들어 해양수산과학관을 찾은 관람객은 하루 평균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들어 지난 7월 말 까지 30만명을 넘어서 지난해 전체 관람객 35만명에 육박했다.
해양수산과학관 측은 올해 관람객이 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사업소로 지난 1998년 개관한 해양수산과학관은 일반

수족관에 어류 100여종, 5천여마리가 서식하고 있어 직접 바다에 온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울초 신설된 체험수족관에서는 치어잡기와 갯벌체험은 물론 팽풍어와 농게, 개불, 우렁쉥이, 해삼, 조개류를 직접 만져볼 수 있어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남해안에서 잡히는 토산어종 수족관도 새로 만들 예정이어서 청소년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각광받게 됐다.
관람료는 어린이 1천원, 성인 2천원이며 단체(60명 이상)는 어린이 700원, 성인 1천500원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돌산읍에 '양식어류 이동 진료소'

여수수산사무소 8~9월 운영

국립수산과학원 여수수산사무소(소장 임여호)가 8, 9월 두달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어민복지관에서 양식어류 이동 진료소를 운영한다.
김진표는 무료이며 치료 약품도 이동 진료소에서는 수산질병관리

사(魚醫師)가 상주해 양식 어류의 기생충성 질병과 이리도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즉석에서 알려주고 세균성 질병 여부는 여수수산사무소에서 실험한 후 결과를 통보해준다.
김진표는 무료이며 치료 약품도 이동 진료소에서는 수산질병관리

'웰빙 먹을거리' 해남 햇고구마 본격 출하

10kg 3만원... 하루평균 30~40t 주문 쇄도

'웰빙 먹을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해남 햇고구마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해남 고구마 대표 유통업체인 화산농협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황토 토양 등 최적의 조건에서 재배된 해남 고구마가 본격 출하되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비자

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수확이 시작된 햇고구마는 요즘 하루 평균 30~40t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가격은 10kg들이 한 상자에 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천원 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해남 고구마는 올해 초 지리적 표시등록을 통해 지역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조직배양 무병묘와 우량품종 선발 재배 등 차별화된 고품질 전략으로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해남지역 고구마 재배면적은 1천870ha이며 연간 생산량은 2천7천여t으로 전국 1위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진도 세방낙조서 '무료 음악회'

한반도 서남단에서 가장 환할한 낙조를 볼 수 있는 진도군 진도면 세방낙조 전망대에서 무료 음악회가 열린다.
진도군은 지역 봉사단체인 '일새아리' 자원봉사단(단장 박완태)과 함께 8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세방낙조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남도민요, 북춤, 관소리 등 국악공연과 가요공연, 색소폰 연주, 흥주 카데일 쇼가 열린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구례경찰 '법질서 확립' 실무협 개최

구례경찰서(서장 김수열)가 최근 15개 가맹단체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리산 계곡과 섬진강을 찾는 관광객들의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열렸으며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했다.
한편 구례경찰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모든 외근경찰관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저탄소 도시'로 거듭나는 함평군

郡,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줄이기 안간힘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함평군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통해 '저탄소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함평군은 이를 위해 실내 온도 적정 수준 유지를 비롯해 승용차 운행 줄이기, 친환경 제품 구입하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실내온도가 28℃를 넘어설 때만 에어컨을 가동하고 사무실에서 필요한 전등만 켜도록 스위치를 개조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지난해보다 23% 정도 전기를 절감했다.
또 수도꼭지를 개량해 수도를 사용량을 줄이고 ▲쓰레기 발생량 줄이고 재활용하기 ▲올바른 운전습관 유지하기 ▲규격의 전기제품 사용하지 않기 ▲나무 싹고 가꾸기 운동 등도 적극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외 함께 지난 4월 함평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공직자와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 환경단체 회원, 이장단, 새마을지



도자, 부녀회원, 농업경영인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온실가스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폐해와 구체적인 실천 수칙 등을 담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영상물을 시청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 김경민 중앙대 교수가 2시간여에 걸쳐 '기후변화와 지역경제, 지역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온실가스에 대한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함평=박진표기자 pj4079@